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9호 [루게 제23271호] 주제99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시고 갖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슴을 방문하신 소식을 10월 9일과 1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셨다. 그이께서는 국장을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문화전당이라고 말씀하셨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나날이 변모하는 수도의 거리들을 돌아보시며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주택건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현대적인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는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과 웹남TV방송, 케스피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스포츠조선협회 인터넷 포럼 등 홈페이지

《조선-백두산》,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10월 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가곡 《향산백과 축영대》를 판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창작하신 가곡 《향산백과 축영대》를 판람하시고 조종천선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시는것은 조선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고 강조하셨다.

그이께서는 문화교류는 나라들사이의 호상리해를 두터이 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피다가극단을 비롯하여 예술단체들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

방송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로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조선인민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셨다.

그이께서는 옥류관 로리전문식당에서 민족로리와 세계적으로 이름난 로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할데 대해 지적하셨다.

한편 중국의 《중국청년보》, 인터넷포럼지 동북망, 로씨야의 소 리방송,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투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가곡 《향산백과 축영대》를 판람하신 소식을, 라오스통신, 이란신문 《이란 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워런의 인터넷포럼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로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신문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에티오피아연년주제사상연구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0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에티오피아연년주제사상연구위원회,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평진 프린팅 프레스출판사 인사와 군중이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청년주제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은 김정일각하의 로작을 출판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하면서 주체사상신봉자들뿐아니라 에티오피아인의 많은 사람들이 로작을 애독하게 될것이다. 김정일각하의 시야말로 김일성주제사상 창간하신 조선로동당을 주석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최대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평진 프린팅 프레스출판사 사장은 얼마간 김정일주제사상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하는데 이 김정일각하의 로작을 출판한것

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결성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나의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최대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30일부가 게재되었다.

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 전민학습의 새 경지를 개척한 최첨단돌파성과

####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인 원력강의체계 확립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대회 정신을 받들고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새겨져 일어나고있는 가운데 전민학습을 위한 새로운 원력강의체계가 완성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전국의 교료, 과학연구단위들에 대한 전문적인 원력교육체계가 마련된데 이어 전민학습의 대진당으로 자랑높은 인민대학당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력강의를 실현할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교육체계가 확립되었다.

컴퓨터망을 통한 자료전송 기술과 다매체 기술을 리용하여 최상의 대중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원력강의는 21세기 교육발전주체로 되었다.

규모와 내용에서 으뜸인 인민대학당에서 각 도인민대학당, 시, 군도서관들, 과학, 교육기관들을 통한 전국적인 원력강의를 실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높은 지식과 문화의 소유자로 키워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인민대학당을 나라의 중심적인 정보자료기지, 보급기지로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정보산업의 시대에 학습당을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인겨주신 인민대학당은 당의 령도밑에 전진학습, 사회교육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나라의 중심적인 정보자료기지, 보급기지로서 자랑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학당을 사회교육의 전당,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로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습당에 전자도서관을 꾸리며 원력강의를 하도록 혁명화가 이루어지시었다.

원력강의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세심히 보살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대학당은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졌다.

전민학습의 대진당을 새 세기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꾸릴 높은 목표밑에 인민대학당과 국가과학원

정보공무원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창조적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령도자 원력강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였다.

과학기술의 높은 창조성과 애국열의에 의해 인민의 컴퓨터로봇체계에서도 리용할수 있는 쌍방향원력강의체계가 짧은 기간에 개발 도입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개발자들은 각이한 조건에서의 불가지 못 통신부하를 측정하는데 기초하여 실시간원력강의 동시가입자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자료기지에 보관된 강의내용을 가입자들이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자랑도, 황해북도들, 비롯한 각 도인민대학당, 시, 군도서관에서 이미 훌륭하게 마련되어있는 빛섬유통신에 의한 정보고속도로를 리용하여 인민대학당의 원력강의를 만들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갖추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전민학습을 위한 최첨단교육체계를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원력강의체계를 교수내용을 시정만 하고 문답을 할수 없었던 종전의 체계들과는 달리 각종 영상과 음성 및 문서자료들을 쌍방향으로 교환하는 실시간대화형체계이다.

실시간대화형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강의내용을 편리한 시간에 볼수 있는 비실시간원력강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자체학습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원력강의를 받을수 있다.

인민대학당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최첨단 원력강의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청년학생들의 학습과 과학기술 보급, 과학탐구에서 새로운 전란을 가져올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지고있는 인민대학당 원력강의체계는 정보의 보급과 공유, 시간절약, 비용감소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근로자들의 지식습득과 창조활동에서 최첨단의 실리를 보장해주는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교육방식이다.

제시성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정보고속도로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갖추어놓음으로써 우리 식의 원력강의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민대학당은 오늘 온 나라 근로자들이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마음껏 리용할수 있는 배움의 전당, 통신종합대학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지금 각지 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으며 수강생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인민대학당 원력강의 학습을 보급하고 학기수업자들을 신속히 습득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온을 내고있다.

원력강의를 받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세상에도 없는 전민학습의 대진당을 일떠세워주시고 최상의 학습과 교육조건을 마련해 주시어 전체 인민을 배움의 향유자로 되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감정을 드리며 인민대학당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꼈고있다.

주체조선의 만년재부르 세세기에 더욱 찬란히 빛나는 인민대학당은 우리 당의 승고한 뜻과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길이 전하며 세상에 가장 우월한 전민교육의 나라,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튼튼번영을 추동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 합용세멘트공장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합용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총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과 공동사업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개건과 생산을 다같이 틀어쥐고 노력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우리는 재원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한 공정의 일군들과 도전자, 기술자들은 짧은 기간에 5호소성로를 개건하여 시운전을 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도전자, 기술자들은 5호소성로를 현대적으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만든 송풍기들을 다른 소성로들에 새로 설치하여 생산량과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원료 작업반에 5호소성로가 개건되는데 맞게 혼합기를 새로 설치

하여 소성로를 만가동시킬수 있게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기 위하여 원료, 자체보장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세멘트생산량을 늘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여러 작업반에서 합용시안의 주요건 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세멘트생산량을 믿음직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료작업반의 도전자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화물자동차와 천정기중기, 분쇄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잘하여 매일 높은 설적을 올리고있다. 소성작업반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교대간 작업조치를 간지켜 하여 질 좋은 크렁카를 많이 생산해내고있다.

전기작업반과 수리작업반원들은 자체의 부족품가공기지, 수리기지를 흔히 꾸려놓고 공장안의 각종 설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세멘트생산량을 믿음직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혁명의대고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헤산강철공장에서— 분사기자 장정일 찍음

## 사설 대고조진군에서 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대표대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한 승리의 기세드높이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에 더욱 파격히 떨치나서고있다.

지난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는 물론 선군시대의 인민의 무동돈인, 사회주의신경을 펼쳐놓은 3월5일청년광산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전체 인민이 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여기에는 로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강성대국건설에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의도가 깃들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전면전투를 벌여나가는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의 개척자, 전초병이다. 로동계급이 소외되지 말아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난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세워진 기개를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로동당시대의 대진군을 안아오고 어려운 고난속에서 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변함없이 개척해나가는 기적창조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다.

공에 대한 충정과 위엄으로 수놓인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선군시대에 새로운 경지에 이르고있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옹위하신 기치를 들고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킬것으로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가 쏟아지는것과 같은 온 나라의 대정사를 뒤편이 안아오고있다. 날갯짓을 가로막아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천하에 시위하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한 대고조의 기적은 당의 부름에 심장을 내뿜을 아는 우리 로동계급만이 이룩할수 있는 자랑찬 성과이다. 당이 결심하면 한복속비쳐 무조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영웅적로동계급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지금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믿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렸으며 오늘도 로동계급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향도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대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아 분출되였던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기백, 투쟁적기개를 다시한번 더욱 힘있게 떨치자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호소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혁명의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강성변영의 세시대를 펼쳐나가는 지극이여말로 우리 로동계급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할 때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주동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은 전체 인민을 대고조에 이끌고 불려일으키는 선봉부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앞당겨 열어나가는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계급의 투쟁기풍, 일본색을 지겨보고있다. 로동계급이 경제건설의 성과를 크게 개하며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가야 전체 인민이 믿음의 신심과 박판에 넘쳐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다.

전체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대고

조사상을 높이 받들고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온 나라에 강성대국의 《산울림》이 끊임없이 울려져야 한다. 당에서 바라하는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결실을 맺고야마는 끝없는 충정,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내달리는 선군자의 기상,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승고한 애국심,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상, 바로 이것이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정신세계, 투쟁기풍, 일본색이 되어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이 깃들여져 있다. 순간순간이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는 충정의 시간으로 되어야 한다. 모두가 연간계획완수자, 새 기준, 새 기록돌파자가 되어야 하며 로동계급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기적적인 사변들이 끊임없이 터져야 한다. 최첨단 대고조의 위훈창조자들과 같이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불굴의 정신력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스림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영웅적로동계급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보다 높은 목표를 정렬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대고조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제의 힘으로 투쟁해나가는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며 최후의 승리로 자랑떨칠수 있다.

전체 로동계급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올리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생산과 기술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돌파하여야 한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며 이것은 창조와 비약의 원동력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

의 열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김철과 성강, 남흥과 비발로로동계급의 본래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돌파전의 환호성, 주체사상의 승리의 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려져야 한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전으로 빛내인 기세로 오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할 대오는 김철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의 로동계급이다.

김철과 성강, 강산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병, 개척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더 큰 경제건설성과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야 한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통성식료공장을 비롯한 공장기업부문 현지지도단위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생산정도의 동을 더욱 거세차게 올려야 한다. 모든 현지지도단위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최첨단돌파전과 생산분포,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도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핵심부대인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려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강히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무실을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로동계급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정치사업을 대세차게 벌여 대고조의 심장속에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떨려오도록 해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기합을 바로하여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당의 대고조사상오만 사고하고 승취하며 오늘 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그처럼 이기는 로동계급속에 세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대고조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개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혁명전통은 피줄기이며 만년초석이다.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야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여도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되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이것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을 언제나 백두의 한길로 향도해온 영광스러운 우리 당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영원히 영광스러운 길일성동지의 당으로,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영원불멸할 업적을 쓰기는 추억속에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일찍이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실 줄은 맹세를 다지시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당의 영원한 필승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도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는 1960년대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여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시며 향강도를 혁명투쟁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릴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우리는 사업은 내가 직접 지도하겠습디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결심과 더불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

하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향강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물론 만경대혁명사적지와 봉화혁명사적지, 회령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더욱 훌륭하게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으며 혁명유적유물들과 혁명사적자료들을 발굴보존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보검으로 더욱 높이 간직하였다.

오늘도 금성드라프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6개월동안에 2년분의 드라프트를 생산하면서 도 공장을 드라프트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려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어제 금성드라프트공장뿐아니라, 일찍이 1970년대에 《생산도 확충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도!》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어 천만민민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에 창조된 대고조진군속도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아로새긴 평양만영기도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는 길에서 이룩하였고 새로운 평양속도, 80년대속도도 투사들이 지녔던 승고한 정신세계로 창조하였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백두의 혁명전통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 위력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나진지 모른다.

혁명전통의 요구에 맞게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전국적판도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유적유물들의

조사발굴사업을 전면적으로 통이 크게 벌려나갈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령도하시어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주신분도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입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고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필승의 보검인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10여년간에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시련과 난관을 차하고 승리를 떨쳐오셨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나라에 조성이 되었던 정세를 두고 세계는 얼마나 우려하였던가.

혁명의 온갖 원수들은 반공화국책동의 광풍을 몰아왔고 우리의 혁명군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책동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셨었다.

조선의 운명이 또다시 철성판에 올랐다고 인류의 랑심이 우리 나라에 쏠리고있던 그때 지구를 흔들며 백두령장의 우리같은 선언이 울려 퍼졌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영웅군열을 이어갈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드림없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분열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주체89(2000)년 3월 사나를 날게도 아팠고하지 않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계승완성해갈 철성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웅이 눈앞에 어려웠다.

백두산밀영과 사자봉밀영, 청봉속영지, 삼지연대기념비, 배계봉속영지, 신사동혁명전적지, 태봉산혁명전적지...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헤쳐며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를 뜨겁게 더듬으시며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었다.

있지 못했 그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귀를질, 우등불자리, 구로현 등 혁명유적유물들을 더듬어 거중히 여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투쟁업적을 보여주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은 우리의 국보이고 재산이라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깊은 현지지도에서 세계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새 세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더욱 숭고고수하고 빛내여갈 천출명장의 신념과 의지를, 주체의 혁명전통을 억센 뿌리로, 피줄기로 하여 승승장구할 위대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강성대국건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강령의 신념과 의지, 배후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차례 백두산지구를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업적이 깃들여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혁명전적지건설사업과 교양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자신의 온몸을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불태우시며 혁명전통은 오직 대를 이어가면서 순결하게 고수해야 한다고, 우리 당은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100% 계승하고 100% 실현하여 수령님께서 넘칠수있도록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라!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고결한 뜻을 온 나라를 혁명투쟁교양의 거점으로 건설하시라!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강성대국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추호의 동요없이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게 하는 빛나는 현실을 안아왔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근원천으로 되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구호도,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타미 아니라라는 배짱도 백두의 혁명전통에서 흘러나오고있다. 최철 단을 돌파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 배쓰에 올랐다. 그때 그들은 평양시의 여러곳에서 공연을 하고있었는데 매일, 매 시각 격동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한껏 흥을 돋우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정액대가 뚜렷한 작품을 가지고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었다.

그들의 공연을 관람한 사회의 여러 부문 일군들의 반향이 대단했다.

맥박치는 시대정신, 드림없는 총애의지, 풍만한 정서와 량만, 넘쳐나는 전투적기백과 기상...

일군들은 저마다 심장의 피를 끓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공연이라고 격찬하였다.

이날도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연을 잘하러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어느 한극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는 무대가 아니라 관람석이 차려졌다. 모두가 의아해하였다. 희한하게 꾸러진 극장안을 둘러보며 관람석이 앉아있던 군인들은 한 일군으로부터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에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따

우리 군인들을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내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결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 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에출출전에 참가한 인민군대의 여러 중대군인들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배스에 올랐다. 그때 그들은 평양시의 여러곳에서 공연을 하고있었는데 매일, 매 시각 격동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한껏 흥을 돋우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정액대가 뚜렷한 작품을 가지고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었다.

그들의 공연을 관람한 사회의 여러 부문 일군들의 반향이 대단했다.

맥박치는 시대정신, 드림없는 총애의지, 풍만한 정서와 량만, 넘쳐나는 전투적기백과 기상...

일군들은 저마다 심장의 피를 끓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공연이라고 격찬하였다.

이날도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연을 잘하러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어느 한극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는 무대가 아니라 관람석이 차려졌다. 모두가 의아해하였다. 희한하게 꾸러진 극장안을 둘러보며 관람석이 앉아있던 군인들은 한 일군으로부터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에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따

로 특별히 보여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었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은 부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그날 방사의 일제사격과 같고 세침이 용솨솨하게 하는 합창단의 공연을 끝없는 흥분속에 관람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원들에게 제33차 군무자출출전에 참가한 군인들의 공연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본 사회 일군들의 반명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공연을 한번 더 보고싶지만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이마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이 군무자출출전에 참가한 중대군인들을 따로 모여놓고 공연을 하는 이번이 처음일것입니다. ...

지휘원들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평범한 중대군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앞에서 공연을 한것만도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해 국가적으로 손꼽히는 큰 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하도록 하였으니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이런 이사가 기록된적이 있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배려하신 사랑과 은정, 그것은 인민군대가 선군시대 군인문화의 창조자답게 되속 사회의 본보기, 선도자가 될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의 결정체이며 희세의 선군정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군인들만이 받아들일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발라트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 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국가선보 22쪽에 조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를 창설하며 중동지역의 항구적이며 포괄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당신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1월 14일 평양

##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령대관광 초급당위원회에서 항일의 내성영을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전구들에서 발휘하신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독보시하고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그에 대한 해설전시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담겨져있는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감동깊은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란부들속에 들어가 읽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항일의 내성영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군인들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결합이 아니고 사랑하며 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잘 보관관리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항일투쟁투쟁시기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의 무기를 잡고 싸워야만 원수들을 소멸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 착취당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계급방향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었다.

또한 우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총마대에 혁명동지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특히 우리 대원들을 혁명가로 믿어주시고 언제나 혁명을 위하여 참되게 살며 싸울것을 바라는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스며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있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총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다루었으며 어느 한순간에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대원들에 대한 헌신적인 교양과 뜨거운 사랑속에서 이룩된 이 혁명적기쁨은 조선인민혁명군앞에서 철저히 생활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나는 여기에서 사령관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투력부대가 1937년 6월 조국전군의 길에 올랐던 때에 있는 일들을 한껏 회상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 부대는 23도구 뒤쪽 산에서 하루낮을 보내고있었다.

국내전군의 직전이었으므로 부대에서는 은밀성을 지킬것을 엄격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식량도 어려운 때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낮에 보초소로 오

김정숙동지의 투쟁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혁명영화들을 통한 교양사업도 정상적으로 짜고들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결사옹위로 빛나는 한영을 수놓아오신 백두산선장군 김정숙동지의 승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더 높은 선현상상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막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노봉통신원 김봉일

##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 《혁명전사는 잠결에도 총을 놓을수 없소》

가서 동무들도 일정한 구간은 거어가고 기어오르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 산의 수림은 조국에 더 진격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수없이 숙영하고있었지만 어느때나 다름없이 가벼운 초여름바람이 나무들이 설레일뿐 인적이 하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아침 9시경 우리 소대의 리동무가 보초근무에서 돌아왔다.

그는 소대에 돌아오자 곧 천막밖에 앉아 새벽이슬을 맞은 총을 손에 집기 시작하였다.

그의 옆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벌써부터 기다리고있던 리동무가 웅크리고 앉아 그의 총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김동무는 장백현 우력골에서 갖입대 한 동무로서 리동무가 말아서 개별교양을 주는 동무였다.

사실 그는 십대 어린아이 되지만 아직 무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국내전공작전에는 참가할수 없는 동무였다.

그러나 이미 지방혁명조직에서 단련되었으므로 특히 국경과 국내 일대의 지리에 밝은 그의 창이 나무도 간절하여 후방물자라도 다루게 하자고 데리고 나왔던것이다.

그는 무기를 더듬이 부러워하였고 리동무의 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루어서 하루빨리 무기에 정통하여 총을 받으려는 의욕이 강하였다.

이날도 그는 리동무의 무기소제를 애써 너그러우게 하고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달랠랠한 부속들을 가리

키며 꼬치꼬치 묻고도 하였다.

그러다가 리동무가 무기소제를 끝까지 마치는데 동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리동무의 옆에 서금 다가가더니 총을 좀 보여달라고 간청하는것이였다.

리동무는 웃음어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또 그 이야기인가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음껏 총을 다룰 때가 올터니 나무 조금 해하지 말라고 거듭 타이르는것이였다.

그러나 신입대원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간절한 그의 응원은 민발치에서 지켜보고있던 나의 가슴에도 크게 울려왔다.

그 간청에 못기여 리동무도 마침내 그의 요구에 응할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총을 만져보고싶어하던 신입대원의 간절한 요구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에서는 아직 무기를 수여하지 않은 신입대원에겐 잠시라도 총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분대장이 지휘관의 부름을 받고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분대장을 찾다가 돌아온 리동무가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자 신입대원도 더는 조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총을 만져보고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생각은 여전하였다.

잠시후 리동무가 총을 꺼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신입대원 김동무는 여전히 부러운 눈길로 리동무의 총을 살피는것이였다.

그 행동을 바라보던 나의 가슴에서도 어느덧 간절한 동정심이 솟구쳤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찌할수

리동무의 잘못은 컸다. 신입대원에 대한 개별교양을 잘 하지 못하여 오발사건을 내게 한 책임도 지지만 보다 심중문제는 그가 비록 잠을 자고있을 때라 하여 자기 손에서 총을 가져가게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그 무기에는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었으며 일제의 구두발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우리 인민들의 절박한 부락이 깃들여있었다.

대무기 그 총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혁명가로 믿어주시고 원수와 끝까지 싸우라고 친히 수여하여주시는 혁명의 무기였다.

그러서 리동무는 그 소중한 무기를 목숨과 같이 간직해야 하였다.

그는 혁명에 대한 총신성을 언제나 그 총을 다루는데서도 표시해야 하였다.

참으로 그에게 늘 이서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스며있었다 그 총을 손에 잡고 서운다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잠을 자느라고 총을 가져가게것을 몰랐다고 하니 결에 서로 우리들의 생각도 깊어갔다.

리동무의 행동은 벌써 그의 혁명적각오에 행이 생기고 무기를 잡고있는 혁명전사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희박해지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렇지 않다면야 혁명에 나서 총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잠에 물린다고 해서 손에서 무기를 빼는것도 모를것이다.

동지들의 비판은 심각하였다. 리동무는 곧 총을 회수당하였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엄격한 규율이었다.

그의 잘못은 컸지만 총도 없이 후방사업에 돌리진 그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나없이 무거웠다.

대무기 오발을 한 신입대원은 언제나 눈길을 땅에 떨고 풀기없이 다녔으며 간혹 리동무와 마주할 때면 이빨바를 물러하는것이였다.

리동무는 이런 신입대원 김동무를 만나 오히려 그를 고무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새로운 임무수행에 모든 열성을 다하였다.

6월 3일 밤 부대는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 오메도에 이르던 조국 땅에 진출하였으며 낮시간을 곤장덕에서 보냈다.

조국땅에서의 하루낮, 우리는 이 뜻깊은 시각에 조국의 흙도 밟아안아보고 싶어서 풀잎뼉도 한껏 말아보면서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과 고창에 대하여, 조국의 슬기로운 역사와 강의를 듣고는 우리의 조국인민과 잊을수 없는 친지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고 강도 일제에 대한 똘똘똘똘는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조국땅에서 원수를 죽일 그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며 무기를 닦고도 닦았다.

드디어 우리 중대가 곤장덕을 내릴 차례가 가까와오고있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뒤쪽에서 리동무를 부르시는 사령관동지의 부르짖음 울림이 울렸다.

3 면으로 계속



항일의 내성영을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오산덕고향집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본사기자 김흥준 찍음





# 관광재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과제

지금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 공화국의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은 남조선통일부에 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한 북남당국간 실무회담을 시급히 개최할데 대한 통지문을 보내었다. 이것은 현시기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 환영하고있으며 관광재개에 하루빨리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하지만 관광재개문제는 내외의 기대와는 달리 그 해결정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지금껏 여러차례 걸쳐 관광재개에 관한 회담을 가졌지만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나, 《추후통보》나 하면서 회담을 요리조리 회피하고있다. 남측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지금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관광재개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의 현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대이상 미흡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교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협력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할수 있습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시대의 요구와 겨

레의 지향에 어긋나게 극도로 악화되어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백해무익하다.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등 각 방면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 있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해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하며 교류를 활성화해나간다면 북남사이에서 존재하는 긴장도 가일수록 완화되고 민족의 화해를 쌓아 통일이라는 좋은 분위기도 마련할수 있다. 여기서 관광사업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북과 남이 진행해야 할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통일외교사업이다. 관광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우리는 지난 시기 그와 관련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포괄적인 전제에서 다 풀어주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에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여올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북남관계의 특수한 환경속에서도 철철한 군사구역까지 관광지로 내어주고 관광정책의 온갖 편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준 우리의 아량과 성의, 대담한 노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금강산관광사업은 북남관계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발달시켜 민족의 화해와 협력사업들이 활기를 띠었고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을 고무추동하였다. 금강산을 다녔던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소원을 풀었다고 하면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련북통일운동에 대적적으로 떨쳐나섰고 있다.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는 북남관계 개선으로 이어졌고 북남관계의 개선은 조국산관광의 활성화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보장해주었다.

그러한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에 활력을 더해준 10년이나 진행되어온 금강산관광사업이 현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중단된 때로 벌써 2년이 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를 통한할 일로 여기면서 관광재개에 하루빨리 열리기를 고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는 풀어야 할 과제를 다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시대 요구하고 온 겨레가 갈망하는 관광재개에 여러 가지 등을 둘러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반통일대결론인 그 무슨 《비핵, 개방, 3000》을 이른바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를 체계적으로 말아먹던데로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관광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린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조선당국은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여전히 고집어내는가 하면 부당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관광재개에 인위적인 장벽을 조성하고있다. 심지어 생생한 민족적인 《천안》호사건과 의결을 거둬서 그 해결이 없이는 관광재개까지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떼를 내고있다. 관광재개사업을 《천안》호사건과 결부시키려는 유지파가 그지없는 생경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야기시키며 그에 토대하여 북남협력사업

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문제를 부정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계속 회피하는것으로 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위기에 돌입이 뿌러지고있다. 관광재개문제는 북남대결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관광사업과 북남관계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관광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관광사업을 가로막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있다.

관광사업에 대한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관광사업을 가로막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있다.

관광사업에 대한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관광사업을 가로막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있다.

#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굴욕행위

지난 4일부터 남조선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른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남조선과 미국의 제철상이 진행되었다. 그 《문제점》이란 미국이 남조선에 끈질기게 요구해온 자동차시장개방문제 등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은 협상에서 미국자동차들의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남조선자동차들의 대미수출을 극력 제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항변 한마디 없이 받아들이는 굴욕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상전의 남강도적인 탐욕과 하수인의 비굴한 굴종의 산물로서 남조선당국자들이야말로 미국의 하수인,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수습없이 팔아먹는 사대매도노릇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침략에 《자유무역》이라는 비단보자기로 씌운 약탈의 울가미이다. 그것은 남조선경제를 미국의 식민지화정체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평등하고 예측적인 협정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약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놓고 지금까지 그 기준을 질질 끌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음모로, 양로 압박을 가해왔다. 현 보수당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기미가 나타나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을 꾸며내고도 성차지 않아하는 미국과 그에 아무 굴종하는 당국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비말치러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도 이것을 인식해서인지 《〈자유무역협정〉의 수정이나 제철상은 있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세력은 저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싶이 미국과 인방에서 제철상들을 불러놓고 자동차시장을 추가개방할데 대한 미국의 압력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것이다.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완전히 개방될 경우 취약하기 그지없는 남조선경제가 어떤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될것인가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철상들을까지 벌

려놓고 남조선의 경제주권을 외래독점자본에 내맡기는것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집권세력야말로 표본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고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노집단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번엔 비굴하게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제철상들을 불러놓는데는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가 없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호전정책은 미국이 조작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세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조선서해해상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전쟁 연습을 벌려놓을것도 꾀하고있다.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거어이 무력으로 해지겠다는것이다. 바로 그 범죄적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대가로 남조선당국은 경제주권을 동족대결의 제물로 섬겨버리는 매국노행위를 거둬림없이 감행하는 행위를 게기로 그 무슨 《경제외교》나, 《위상》이니 하며 민중이 속에서 울라간것처럼 기고만장해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세의 뺨부스레기로 살아가는 가련한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너두리이다. 이번에 남조선이 벌려놓은 《자유무역협정》 제철상들은 그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이 지난 수십년동안이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미국의 멍에에 매여 정치경제적으로 너무나 질식되어가는 원인을 남조선보수세력의 친미사대매국정책에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마수를 끊어버리고 자주적발전권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정책부터 끝장내야 한다.

은 정 철

## 방글라데시 단 계 발행

방글라데시 언론정지연조소에서 3일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블레전을 발행하였다.

블레전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하였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조선의 평화제안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지지를 받았으나 미국은 이를 거역해나갔다. 미국과 남조선은 방대한 무

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천안》호사건의 원인이 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만들어내게 하였는데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갔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북조선의 위협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에게 더욱 바짝 끌어당길수 있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주변나라들이 군비경쟁에 말려들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억제하

는것과 함께 자기 나라의 군사산업에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미행정부는 국제문제해결에서 이른바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난을 면하고 올해 중간선거에서 저들에게 리로운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의의의 시각에 열혈적으로 면저질수 있는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면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 《천안》호 침몰사건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학술본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가리우려는 국방부의 술책을 폭로규탄하였다.

성명은 국방부가 어뢰추진체 내부에 붙은 조계검침을 때내어 증거물을 없애버리고 리치에 맞지 않는 말을 마구 늘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저들이 발표한 《천안》호 침몰사건조사결과와 부당성을 어떻게 하나 은폐하려는 비열한 속심이 깔려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또한 국방부가 조계검침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면서 사진만을 보낸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은 저들이 속바른 진실규명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

편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당국이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호 침몰사건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천안》호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미국이 합선침몰사건진상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해 반드시 침몰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그러하면 미국이 하루빨리 진실규명을 나서야 한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이 《천안》호사건과 《키 리졸브》, 《독수리》 복합합동군사연습과의 련

관상부터 밝히것을 요구하였다.

합선침몰사건은 북침전쟁연습기간에 일어났고 미제 7함대가 작전지휘령을 행사한연습에는 대잠수함함동훈련이 포함되었었고 회견문은 밝혔다.

회견문은 미국이 당시 사고수역의 정황을 장악하고있는것 만큼 침몰과 관련한 일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사고수역에 대한 수색에 동원되었던 한 장교가 합선침몰사건과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은 사실과 미국측이 이력조서로 《조문》이 이뤄지니 하며 유가족들앞에서 너스레를 피운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그가 《천안》호가 아닌 미군잠수함수구작업중에서 숨졌을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제내부에서 조계검침을 일부러 매내는 비열한 행위를 저질렀다.

국방부는 성분분석과 관련한 여섯도 여론을 기만하였다.

얼마전 국방부는 그 무슨 립장자료를 발표하여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양성상사건진상규명과 관련한 의심을 풀기위해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것은 실물이 아니라 조계검침이 찍힌 두장의 사진 뿐이었다.

폐류학회 교수 리용석은 국방부가 사진 두장을 보내며 어떤 종류의 조계검침이냐봐달라고 하였을뿐 그것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당국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투쟁을 선언

남조선의 민주민주로동조합총연맹과 민주로동조합연맹이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은 자본가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로동자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반민중적인 협정이라고 단죄하였다.

일자리마련과 로동조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협정은 결코

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일자리를 늘리고 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로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부터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동자들이 협정 체결을 저지시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한것과 함께 자기 나라의 군사산업에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미행정부는 국제문제해결에서 이른바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난을 면하고 올해 중간선거에서 저들에게 리로운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의의의 시각에 열혈적으로 면저질수 있는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면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의 민주로동조합총연맹이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국제회의 대응 민중행동》이 11일 서울외곽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실자유주의 《세계화》의 실패를 확인시켜주고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자유

무역협정》 체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민족의 삶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고 선언은 단죄하였다.

선언은 당국이 반민중적 압장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날 남조선파도양당은 27개 총대 3000여명의 경찰화병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으면서 폭압에 날뛰었다.

본사기자

## 정치시녀의 독단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민주당소속 《국회》원들이 5일 모임을 가지고 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의 반민중적 독단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현병철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지고 당장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현병철이 앞서 인권위원회는 4일부터 인권위원회에서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본사기자

권력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 기구가 독립성을 상실하였던 존재라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병철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지고 당장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현병철이 앞서 인권위원회는 4일부터 인권위원회에서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본사기자

## 미국의 횡포한 처사를 단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민주로동조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미국의 횡포한 처사를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미친소고

기의 수입제한기준을 해제하고 검역조건을 완화할것 등을 당국에 강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에 의한 온갖 굴욕과 희생을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더욱 틀어쥐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야망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미국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제철상들을 중지할것을 단체들은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또한 조선반도에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미군사적추진과 경제적부담을 초래하는 미차일방체제구축책동에 남조선의 풀이들어가는 미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북대결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보수 《정권》의 초기 통일부를 없애도록 내버려둘것을 그랬다고 환란하고있다.

통일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남조선집권세력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각계층 인민들은 통일부가 집권자의 말 한마디에 무작정 맹종맹종하는것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북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방도를 주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대표적인 대결론자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조선 각계의 진보세력들과 언론들은 《비핵, 개방, 3000》정책작성에서 핵심적역할을 한 현인택이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대결강경파로서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하면서 애당초 그는 통일부 장관직에 앉았는것부터가 잘못인것만큼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제라도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이고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반북대결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보수 《정권》의 초기 통일부를 없애도록 내버려둘것을 그랬다고 환란하고있다.

통일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남조선집권세력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각계층 인민들은 통일부가 집권자의 말 한마디에 무작정 맹종맹종하는것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북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방도를 주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대표적인 대결론자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조선 각계의 진보세력들과 언론들은 《비핵, 개방, 3000》정책작성에서 핵심적역할을 한 현인택이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대결강경파로서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하면서 애당초 그는 통일부 장관직에 앉았는것부터가 잘못인것만큼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제라도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 대결기금으로 전략되고있는 《남북협력기금》

각계도 북과 남의 언어차이를 없애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을 적극 지지찬동해나갔다.

은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의 언어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제대결기금》을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은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성, 단결성을 특징짓는 기본적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반민중적인 유구한 세월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왔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인공적분열과 북과 남에서 언어가 서로 달라라면서 우리 민족은 단일한 민족성을 잃고 유지할수 없다.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은 민족의 단결성을 유지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할 사업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도 북과 남의 언어차이를 없애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을 적극 지지찬동해나갔다.

은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의 언어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제대결기금》을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은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성, 단결성을 특징짓는 기본적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반민중적인 유구한 세월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왔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인공적분열과 북과 남에서 언어가 서로 달라라면서 우리 민족은 단일한 민족성을 잃고 유지할수 없다. 《국제대결기금》 편찬사업은 민족의 단결성을 유지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할 사업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

지기고 고수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탐욕은 죽이에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반민중적 태도를 언론들은 일찌감치 《오면 정적처사도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사업보다도 중요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의 《남북협력기금》 지원기부책동에 《언어의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중적책사로 규탄해나갔다. 바빠왔던 통일부는 얼마 되지 않은 내역을 내주는것으로 생색을 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협력기금》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책동을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다.

사실상 남조선당국은 지금껏 《남북협력기금》을 반통일대결정책실현에 적극 악용해왔다. 대결판시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지않아바람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비법적으로 사용되고나자 잘못 적용되었다. 그 때를었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부의 핵개발과 무력증강에 리용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지어 남조선인민간대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남조선 《정권》이 출현한 이후인 2008년에는 18.1%, 2009년에는 8.6%, 올해는 3.8%까지 떨어졌다. 결국 집권 세력은 《남북협력기금》을 반통일대결정책실현에 적극 악용해왔다. 대결판시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지않아바람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비법적으로 사용되고나자 잘못 적용되었다. 그 때를었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부의 핵개발과 무력증강에 리용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지어 남조선인민간대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남조선 《정권》이 출현한 이후인 2008년에는 18.1%, 2009년에는 8.6%, 올해는 3.8%까지 떨어졌다. 결국 집권 세력은 《남북협력기금》을 반통일대결정책실현에 적극 악용해왔다. 대결판시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지않아바람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비법적으로 사용되고나자 잘못 적용되었다. 그 때를었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부의 핵개발과 무력증강에 리용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지어 남조선인민간대결

반북대결기금 편찬사업

본사기자 심철영

# 제재와 봉쇄는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침략수법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여러가지 방법과 수법으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제재와 봉쇄는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상투적인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다른 제국주의 세력들이 전방적으로 약해진 반면에 더욱 비례해갈 대로 비례해진 미국은 팔라주머니를 흔들며 제재와 봉쇄를 반동적외정책의 주요수단의 하나로 삼아오고 있다.

세계제국을 변함없는 야망으로, 전략적포로 삼고있는 미국은 경제제재와 봉쇄를 통하여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 적시시켜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삼고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되고있는 나라들을 보면 페이없이 미국의 말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이다.

지난 시기 미국은 저들의 지배와 약탈의 목적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를 경제방식을 고립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방적 정치, 경제방식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여러 나라들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전파》라는 어이마한 강요를 씌워놓고 제재와 봉쇄를 들이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있다. 그들은 경제제재를 마치고 세계의 《영화와 안정》,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것인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 써도 저들의 제재책동의 정당성과 침략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은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이며 엄청난 자구전체해행위이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반대

하여 국제적연합을 실현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며 특히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를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과 협정, 결의들에서는 타국의 자주권과 그의 경제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예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박조치를 취하는 것, 타국에 경제적봉쇄를 하는것 등을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경제제재책동은 국제법에 엄중히 위반된다.

미국이 일삼고있는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리는 악랄한 간섭책동의 한 고리이다. 미국은 제재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일방적인 강도적외교와 의사를 내리치고 고분거리게 만들어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적시시키고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를 씌우려 하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적하면 부당한 구실을 붙여 경제제재를 들이대고있는 미국은 무어에 수십 년동안에 걸쳐 경제제재와 봉쇄를 계속해 들어오고있다.

미국은 수리아에 대해서도 《테러 지원》이니 뭐니 하고 끌고들며 제재 물동기를 휘둘러대고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반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압박과 제재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데 미국이 추구중인 것은 물론 국제기구들도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제화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세계제국을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은 그 집요성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

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 나라를 고립약화시켜 무력하게 만든 다음 침략사태가 오는 심산에 최근년간 제재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우리 나라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미국은 제재의 폭을 우리 나라와 경제거래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확대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과 회사명단들을 수집한다. 조선의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좌들을 검색한다 어떤다 하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미제무성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 《전과형의》로 미국의 경제대상들과 거래하는 우리 나라의 무역회사들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지어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제3국 회사 및 개인들도 같은 제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마치고 대조선제재가 핵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도》로 되는듯이 떠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사적외교의 강대국건설과 얼거나 불안감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비협조와 위장정의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수동에 일본이 발벗고나서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 의안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는 데 앞장서 달친것도 일본이고 대조선 제재수동을 벌리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는것도 일본이다. 독자적인 대조선 《추가제재》조치를 취한다. 그 무는 《적정비》를 다그친다 하면서 무산물을 내놓고, 각료회의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전면수출금지》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무역과 금융제재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선원의 일본상륙을 금지시키기로 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처벌이 확정된 주인의국인이 우리 나라에 왔을 경우 일본본토로의 체포를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법에 조악바는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하기까지 하였다. 미일반동들이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제재수동을 벌리는 목적이 우리 나라의 무력으로, 대외상업적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고립적시시키려는 데 있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추종세력까지 발동하여 제재바탕을 일군다고 하여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간 미국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살아온 조건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말든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미국이 제재수동을 취하든고 하여 우리가 못살것은 더구나 없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미국의 끈질긴 제재수동에도 끄떡없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난국을 헤쳐왔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추진시켜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수동은 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적개심을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수동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있다. 미국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반제국주의적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의 전주곡으로 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라크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제재를 가하다가 군사적침공으로 이 나라를 타도한 미국의 행동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미국이 대조선제재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군사적침략을 전제로 한것이며 그것을 순신행위하려는 전락적기초에서 출발한것이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로 우리 나라를 최대한 고립시키고 경제수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다음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고립, 적시, 굴복시키기 위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이 보다 큰 범위의 침략성, 횡포성을 띠고 감행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최근년간 그 무는 《대량살상무기전파의 위험성》을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외교를 형성하기 위해 발방적으로 책동하여온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유화》수법, 무장해제수법, 군사적압박수법을 비롯한 별의별 수법들을 다 적용하였으나 우리가 철대로 굽어지지 않게 되자 제재를 통해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따위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고 불순한 정치군사적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은 어서까지 짝이 없는 망상이다.

미제가 국제법규범들을 마구 유린, 파괴한다면 조선반도는 전쟁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다. 국제법과 정전협정 등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신뢰가 허물어지게 되면 부득불 다른 억측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는것은 불가피한 일로 된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을 강화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터뜨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는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 인민이 미국의 제재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무력행사와 같이 엄중시하며 에면하게 대하고있는것은 그대면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저들의 제재에 대처하여 상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했기이러는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들이 악랄한 제재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덤벼들면 우리 인민은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안길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힘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전쟁을 불러오는 대조선 제재책동을 당장 접어들어야 한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선통일 84돐을 즈음하여 벌가리아반과조동맹기관지 《파라라》 10월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인민의 복리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1945년 10월 10일 당창건의 역사적유업을 실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했다.

신문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지난날 투쟁의 진공에서 해마다던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주체로 되어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민족의 통일과 단합,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기념 로동회가 내발, 민주공화, 인디에서 진행되었다. 로동회장은 정명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모서지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진설 명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건들이 토론회장들에 전시되어있다.

토론회들에는 내발공산당 (팍스-에넌주의), 공산당 (연합), 사회민주당, 민주공화 김일성주제사상연구소, 청년주제사상연구소, 청년소조, 주체사상규명연구소, 파블리크 뉴스문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해당 나라 주체사상과 봉쇄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들에는 내발공산당 (팍스-에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마이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원한 태양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지난 65년간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재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내발공산당 (팍스-에넌주의) 당원들과 내발인민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영원한 태양 김일성동지그대로서인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위대한 조선사상과 봉쇄의 조선통당그리고 영웅적인이 있는 한 조선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설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 공개장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 공개장 (1) 《미국과 리명

박역적패망이 날조한 <천안> 호사건은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이 1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S/2010/568호로 배포되었다.

이란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함미원조전쟁은 새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보여주고있으며 중국군대로 하여금 현대전쟁의 세례를 겪게 하였으며 중국군대의 군사사상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애국주의와 혁명적영웅주의, 혁명적관공주의, 국제주의를 일깨워준 함미원조전쟁은 중국인민들의 애국주의열정과 생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인민경제의 회복과 대규모의 공업화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메히코와 인디아가 9일

## 서방의 오만성을 규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8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서방나라들의 오만성을 규탄하였다.

그는 서방이 자기들을 다른 나라들의 우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리리를 짓밟으며 폐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 적대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씨가 10일 한 담화석상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진심으로 평화회담제개를 바라다면 유대인 정착촌건설과 군사적압박을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베루와 콜롬비아는 두 나라사이의 국경지역에서 마약밀매행위를 막기 위해 호상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튀니지에서

중국의 중경시에서 앞으로 3~5년내에 확장전류역에 380만대의 자동차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해마다 100만여명의 인력에 각종 나무를 심게 된다. 계획이 수행되면 시의 산림면적은 65%로 달하게 된다.

튀니지에서 항공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부문 전문가양성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센터의 부지면적은 2만㎡에 달하며 여기에서 항공운수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이 양성되게 된다.

공사는 2012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고있다.

정부에서 센터건설에 많은 자금을 들이고 있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3월 21일에 시작된 이란전도의 첫 7개월 동안에 비원유제품수출액이 지난 이란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대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에서 항의시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10일 국제환경보조단체인 그린피스 선원들의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전선자의 이 나 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시위에서 그들은 미국이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방지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하였다.

—영국의 런던에서 10일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정부가 학비를 3배로 올리는

## 세계를 휩쓰는 핵전쟁위험

최근 여러 나라들을 거처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소포로 위장된 폭발물이 발견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핵이 터진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세계가 테러공포 중에서도 시달리고있다.

사건은 영국과 아랍장군국연합의 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들어있는 소포가 발견된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폭발물소포들은 모두 에멘에서 발송된 것으로서 그중 하나는 도이쉴란드의 비행장을 거쳐 영국에, 다른 하나는 카타르의 도하비행장을 거쳐 아랍장군국연합의 두바이에 도착하였다. 두 소포의 목적지는 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유대인교회였다.

현지에서 해당 경찰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소포에 있던 고성능폭약은 인체기공 크롬안티몬염을 함유하고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발견된 폭약은 기공장 치 혹은 열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한것으로서 지난해말 세계를 떠돌아다니다 미국령제기폭파미사

건당시에 사용된것과 똑 같다. 폭발물소포는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도 발견되었다.

도이쉴란트정부 내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 수상 메르켈의 사무소에서 폭발물 의심되는 루메미가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그리스에서 도 폭발물소포들이 발견되어 소문이 일었다. 이 나라에서 이탈에 들어오지마자 유럽 나라 지도자들과 여러 나라 대사관들을 노린 폭발물소포가 편이여 발견되는 조치가 취하였다.

프랑스대통령과 이탈리아 수상에게 보내는 폭발물소포가 발견되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비행장에서는 유럽경찰본부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내려던 폭발물소포가 적발되었다. 벨지크, 네덜란드, 메히코대사관들에 보내는 폭발물소포도 발견되었다.

그리스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는 정제물들이 보내는 소포에 의하여 두번에 걸쳐 폭발이와 발생하였다. 대사관주재에서 여러개의 폭발물들이 또 발견되었다. 그리스 주재 스위스, 벨가리아, 칠레, 도이쉴란드대사관들에서도 소포들에 의해 폭발사건이 일어났다.

계속되는 폭탄테러공격미수사건으로 하여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공포증이 휩쓸고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느라 급급하고있다.

유럽동맹은 유럽동맹위원회 회견문안에서 접수원들과 공무원들이 그 어떤 소포든지 받지 않도록 하고 의심스러

이 있다고 보는 화물물 경우 비행기에 실을수 없게 하고 화물수송기는 반드시 추가검색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400g이 넘는 인체기공크롬안티몬염을 지닌 자국민을 막론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령역에 한해서 휴대금지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내로 들어오는 화물물 해당 나라 정부, 운송업체가 발송하는 화물물수송기를 자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국은 모든 자국행 원동물은 개별적으로 검사받을것을 하였으며 주소가 확실한 사람만 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소포로 위장된 폭탄공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취해진것이지만 위험한 폭발물들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대내적으로 시비거리고 되고있다.

이밖에도 여러 나라들에서 도 폭발물소포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 항공화물수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있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매개 나라들이 아무 리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하여도 안전하지 않다고 모든 운반물과 화물물 하나하나 빠짐 없이 다 검사하여 폭발물을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있다. 그러면서 최상의 방도는 테러공포증을 물어온 원인을 공화물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세 규정을 발표하였다는데 따라 폭발위험성

지역의 독자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

지역의 독자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유럽동맹의 움직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얼마전 유럽동맹은 2011년초까지 은행들과 보험회사들, 시장거래를 감독하는 3개의 범유럽동맹적인 재정감독기관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그후 유럽동맹은 동맹리사회 비공식회의에서 동맹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선원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대외정책조정과 경제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동맹 선원국들은 국방사회의를 열고 유럽의 안보 및 방위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선원국들이 지역의 군사적리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체의 군사작전능력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정치, 경제, 대외정책은 물론 안전분야에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안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유럽동맹의 이러한 활동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기의 관심과 끌고있고 있다.

최근 유럽동맹 선원국들은 벨지크의 브뤼셀에서 수뇌자회의를 가지고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사용지역 나라들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지원틀거리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유럽동맹 선원국들이 서로 자금을 내어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목적은 자체의 힘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틀거리를 갖추는 데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부적인것들에 대해서는 유럽동맹의 집행기관인 유럽동맹위원회가 올해 12월에 열리는 수뇌자회의에서 제안한다고 한다.

지역의 선원들은 이것을 놓고

유럽동맹이 유럽관 국제통화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분석가들도 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유럽동맹의 활동에서 하나의 사본으로 된다고 하고있다. 그들의 견해는 유럽관 국제통화기금창설문제를 놓고 의견상이가 있었지만 국제무대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공통된 지향의 로로부 그것이 비교적 순탄하게 실현되었다는것이다. 물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는 두고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명백히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창설하려는 유럽동맹의 시도로 볼수 있는것이 분석가들의 일맥상통한 견해이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들고있다.

유럽동맹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왔다. 그것은 1990년대에서부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시는 동유럽사회의의나라들이 붕괴된것을 계기로 유럽문제에 간섭해나갔다. 미국은 유럽에 이례라 저러라 혼신사투하였가 하면 저들의 세계적비밀수위정책에 북중유럽을 요구하였다. 새 세계에 들어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더욱 로골화되었다. 제나베대로 유럽을 새 유럽과 낚아채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나베대로 유럽을 새 유럽과 낚아채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나베대로 유럽을 새 유럽과 낚아채기 시작했다.

합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급속히 밀고나갔다.

이에 따라 유럽동맹이 확대되었다. 유럽동맹이 차지하는 령도와 인구수도 늘어났다. 유럽동맹 선원국들의 국내총생산액도 훨씬 증대되었다. 지역적통합을 다그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유럽동맹내에서는 문제토의와 결정체계를 여러 측면에서 결의 방식을 가지고있는 지역적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는 주장과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여러 국제문제들에서 유럽동맹 선원국들이 한목소리로 공동보조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것이 분석가들의 일맥상통한 견해이다.

이로부터 유럽동맹은 하나의 법률적틀거리에 기초한 지역적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유럽 동맹이 대외정책에서 통일유럽 독자성을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국이 되는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리스본조약》이 발표되어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현과 국제적지위강화, 영향력확대를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유럽동맹은 《유럽동맹 법령》이라고도 불리우는 동맹리사회 의장과 외부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외교 및 안보정책당고위대표를 가진 전연한 기구체계를 갖추고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국으로 등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금융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할수 없었다. 미국은 저를 주도하여 창설된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유럽을 급속

으로 통제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 선원국들인 유럽나라들은 지난 시기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얽매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은 안위적 되어있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유럽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유럽동맹의 영향을 흐리게 하였다.

이미지부터 이것을 느끼고있던 유럽동맹은 자체의 금융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이 바로 유로의 출현이다. 유럽동맹은 지역단일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2년부터 정식 유로를 유통시켰다. 하지만 유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얽매어진것으로 하여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 여파로 유럽나라들이 경제위기, 유로위기를 겪지 않은 안위적 되었다. 지금 유럽동맹의 일부 선원국들이 채무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것. 그로 인하여 이 나라들에서 사회적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는것 등은 그 후과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유럽관 국제통화기금을 창설하고 그것을 통하여 위기에 벗어나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분석가들은 아직은 결론하기 이르지만 실제로 유럽관 국제통화기금이 창설되어 움직인다면 커다란 인적, 물적장벽과 정치, 군사적능력을 가지고있는 유럽동맹이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하고있다.